

대학선수들의 자율성과 성취동기와의 관계

황성근
경북과학대학교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y and Achievement Motivation of University Players

Sung-Geun Hwang
Kyongbuk Science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대학 운동선수들의 인지된 자율성 인식과 성취동기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서울 및 수도권에 재학 중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25개 종목의 396명의 유효표본을 얻었으며, SPSS 18 프로그램과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데이터를 정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하여 자율성과 성취동기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한 결과는 자율성 인지에 있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회귀분석결과 자율성 인지는 숙달접근과 수행접근의 접근 성향의 성취목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자율성, 성취목표성향, 대학선수, 숙달접근, 수행접근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figure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y and achievement motivation of the university players. For this purpose, Survey was performed to Seoul and Metropolitan area's 25 sports 396 Players., And using SPSS 18 and AMOS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were conducted. Based on purified data through the process,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y and achievement motivation was verified with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autonomy was recognized by male player higher than female player, and in goal-orientation of the access tendency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male player showed higher scores. And in mastery-avoidance of avoidance, female player showed higher scores and in performance-avoidance, male player showed higher scores. According to regression analysis, autonomy affects mastery-approach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f the performance-approach.

Key Words : Autonomy,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University player, mastery-approach, performance-approach

1. 서론

인간의 기본욕구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자율성은 개인 행동의 주체가 자신이 되어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이며, 유능성은 주변 환경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관계성은 타인과의 끈끈한

Received 1 February 2016, Revised 29 February 2016
Accepted 20 March 2016, Published 28 March 2016
Lead Author: Sung-Geun Hwang(Kyongbuk Science College)
Email : hsg073@naver.com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관계의 형성과 발전을 말한다. 또한 자율성(autonomy)은 다양한 행동을 자의식으로 통합시키고 자기결정성을 경험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다[1].

자기결정성이론(SDT: Self-determination Theory)은 Deci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우선적으로 자율성의 보장을 강조하고 가장 핵심적인 동기로 뽑고 있다[2].

자율성이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자연스러우면서 기본적인 심리욕구이다. 또한 자율성의 성취 수준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까지의 변환 과정에서 중요한 조절 요인이다[3,4]. 따라서 인간은 누군가에게 의해 조종당하기 보다는 자기 스스로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을 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하고 유능성을 입증하고 싶어 한다.

스포츠 현장에서 지도자는 선수의 참여와 몰입을 이끌어내며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게 하는 기술적, 심리적 으로 매우 중요한 타자이다. 따라서 스포츠 현장에서 지도자의 자율성지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스포츠구조는 그동안 훈련성과 즉, 경기력 증진을 위해 억압적이고 비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경험적으로 보아도 마지못해서 참여하는 훈련보다 사회적 지지자들, 즉 부모와 코치, 혹은 동료들의 믿음과 지지에 의한 자발적인 훈련참여는 훈련 분위기는 물론 선수들의 성취에 영향을 미침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연구에서도 코치와 부모에게 자율적인 지지를 받는 체조선수들이 그렇지 않은 선수들 보다 더 자기결정적 동기를 가지고 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5].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들의 욕구와 심리적 압박을 최소화하면서 선수들의 기분과 관점을 인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주며,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

경쟁적인 스포츠상황에서 선수와 코치의 관계는 코치가 선수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선수들의 동기적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스포츠상황에서 동기적 성향은 그동안 성취목표로 집약되어 왔다. 성취목표는 공통적으로 유능감에 근거한 행동의 목적이나 목표로써 개념화된다[6,7]. 처음에 성취목표지향성은 학습자가 왜 학습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로서 숙련목표와 수행목표의 2요인 구조로 설명되었다[8].

스포츠상황에서 성취목표성향은 초기에는 과제(Task)와 자아(Ego) 목표 성향으로 소개되었다[9]. 과제 목표는 선수들이 기술에 대한 숙달과 학습에 중점을 두

고 과거의 경기력과 비교하여 자신의 유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자아목표는 다른 선수와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의 유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선수들이 훈련과 시합이라는 성취상황에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기준을 자신에게 두느냐 혹은 다른 선수에게 두느냐이며, 시합성적 즉, 경기력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할 때 중점을 두는 기준차이를 설명해주는 것이다.

이후 1990년 후반 Elliot와 동료들[10]은 2요인 구조에 회피구인을 포함시켜 숙련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 목표라는 삼분법적 모델로 이론적 구조를 변화시켰다. 후에 Elliot는 숙달목표 뿐만 아니라 수행목표내에서 접근과 회피를 구분한 2x2 성취목표성향을 제안하였다. 접근성향은 긍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성공가능성을 증가시키지만, 회피성향은 부정적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회피하는데 초점을 두고 실패 확률을 감소시키려고 한다[11].

자율성과 성취목표성향을 연구한 선행연구로는 오유진, 유진[12]의 무용내적동기와의 관계, 대학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김기형, 박중길[1]의 지각된 자율성 지지와 기본욕구 및 동기적 성향간의 연구, 정예지, 홍은아[13]의 자율성과 팀 성과에 대한 연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각된 자율성지지와 심리적 욕구 및 운동 행동 간의 연구 [14], 정청희, 김영숙, 성장훈[15]의 자율성과 유능성 지각 및 내, 외적 동기에 관한 연구, 오영택, 양명환[16]의 자율성 지지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양명환[17]의 자율성 지지에 대한 동기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자율성과 2X2 성취목표성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중 김기형, 박중길[1]의 연구는 자율성을 지지하는 대인간 코칭 스타일이 대학 운동선수들의 기본욕구를 매개로 동기적 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것은 대학운동선수들을 코치하는 지도자들이 선수들의 내적동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선수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에 자기결정성이론에서 가장 강조한 자율성이 유능감에 근거한 성취목표성향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를 통한 대학선수들의 심리적 지표에 관한 자료를 제시 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편의표집방법으로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운동선수 414명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이중응답을 포함하여 불성실하게 답한 18부의 자료를 제외하고 396명의 자료를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여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선수들의 연령은 평균 만 20.5세이며, 종목은 컬링, 스키, 펜싱, 조정, 야구, 볼링, 태권도 등 25개 종목이다. 성별분포는 남자 219명(55.3%), 여자 177명(44.7%)이었다. 국가대표선수경력의 분포는 국가대표선수 경험이 있는 71명(17.7%)과 국가대표선수경험이 없는 선수가 325명(82.1%)이다.

2.2 연구도구

2.2.1 자율성

자율성 질문지는 Deci(2001)의 단축형 스포츠 분위기 질문지(the Sport Climate Questionnaire; SCQ)를 박종길(2009)[1]이 이강현, 김병준과 안정덕(2004)의 번역본 절차에 준하여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autonomy

Items	Factor loading
autonomy 1	.825
autonomy 2	.881
autonomy 3	.865
autonomy 4	.901
autonomy 5	.887
autonomy 6	.876
Eigen values 4.572, variable 76.203%, Cronbach' a .937	

이 질문지는 1개요인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리커트형(1점=전혀 아니다, 7점=매우 그렇다)이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Cronbach's α 에 의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은 공통요인분석방법(Maximum Likelihood)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사각회전법(Direct Oblimin)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6문항이 단일 요인으로 묶였으며, 이들의 전체 변량은 76.203%이며, 신뢰도는 .937로 분포되어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이고 있다. <Table 1>은 자율성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및 신뢰도 분석 결과이다.

2.1.2 성취목표성향

체육수업맥락에서 청각장애학생의 성취목표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Elliot와 McGregor[8]에 의해 개발된 검사지를 기초로 하여 박종길과 장덕선[18]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개발한 2x2 스포츠성취목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숙달접근, 숙달회피, 수행접근, 수행회피 4요인에 각 4문항으로 구성된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수집된 자료를 최대우도법과 사각회전방법인 직접 오블리민 회전방법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4요인 구조가 확인되었다.

<Table 2>는 성취목표성향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이다. 4요인 모델의 전체 설명변량은 64.47%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또한 양호한 계수를 보였다(KMO=.834;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치=3134.164, df=120, p<.001), 요인별 신뢰도는 숙달접근 .822, 숙달회피 .895, 수행접근 .808, 수행회피 .900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Items	Factor			
	performance-avoidance	mastery-approach	mastery-avoidance	performance-approach
achieve 14	.890	.011	-.236	-.231
achieve 13	.834	-.024	-.217	-.181
achieve 15	.817	.025	-.265	-.209
achieve 16	.788	.030	-.339	-.194
achieve 3	.005	.822	-.022	-.386
achieve 2	.038	.772	-.142	-.363
achieve 4	-.026	.771	-.103	-.435
achieve 1	.012	.572	.084	-.324
achieve 6	.212	.015	-.859	-.184
achieve 7	.275	.014	-.852	-.116
achieve 5	.248	.129	-.813	-.183
achieve 8	.327	.054	-.781	-.180
achieve 9	.185	.346	-.145	-.799
achieve 10	.163	.451	-.230	-.788
achieve 11	.075	.452	-.060	-.749
achieve 12	.289	.250	-.157	-.565
Eigen values	4.172	2.935	1.941	.946
variable	26.074	18.345	12.132	5.915
accumulate variable	26.074	44.420	56.551	62.466
α	.900	.822	.895	.808

2.3 연구절차

자료수집은 지도자와 협조를 통하여 연구의 취지와

목적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한 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선수들을 대상으로 응답시 조사의 목적과 작성요령, 익명성보장, 자료사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질문지작성 시간은 약 20분으로 나타났다.

2.4 자료분석

자료처리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회수된 설문자료를 연구자가 재검토과정을 거쳐 설문작성에 불성실하다고 판단되거나 일부내용이 누락되고, 응답 고정화현상을 보이는 자료를 제외시켰다. SPSS Ver. 18.0과 AMOS Ver.17.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각 검사지의 요인구조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탐색적 요인분석, 내적일관성분석,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인들 간의 상호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모형을 평가하기 위해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우수와 비우수 선수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성은 $p < .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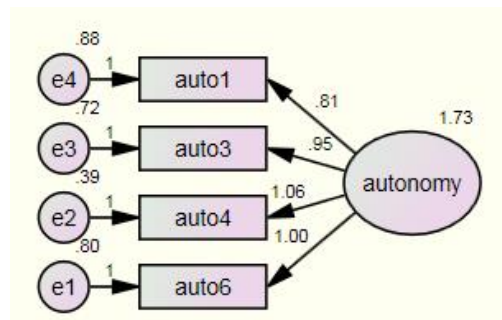
3. 결과

3.1 자율성과 성취목표 성향의 측정모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지된 자율성 질문지와 행복감 질문지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한 측정모형을 제시하였다.

3.1.1 자율성의 확인적 요인분석

선수들이 인지한 지도자의 지도력 질문지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여 [Fig. 1] 과 <Table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자율성 질문지의 전반적 지수를 나타내는 <Table 3>에 의하면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Q=2.617$, $P=.073$, $TLI=.99$, $CFI=.997$, $RMSEA=.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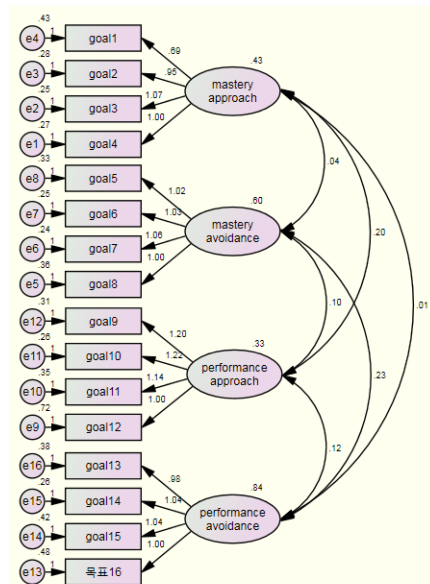
[Fig.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autonomy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autonomy

CMIN	df	p	CMIN/DF	TLI	CFI	RMSEA
5.235	2	.073	2.617	.99	.997	.064

3.1.2 성취목표성향의 확인적 요인분석

대학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 질문지를 확인적 요인분석 하여 [Fig. 2] 와 <Table 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Table 4>에 의하면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Q=1.83$, $TLI=.96$, $CFI=.96$, $RMSEA=.05$)



[Fig.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CMIN	df	p	CMIN/DF	TLI	CFI	RMSEA
311.469	98	.000	3.178	.922	.936	.074

3.2 성별에 따른 자율성과 성취목표의 차이

대학선수들의 자율성이 성취목표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기술통계로서 각 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autonomy &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ex	autonomy	mastery-approach	mastery-avoidance	performance-approach	performance-avoidance
Total (396)	4.31±1.33	3.65±0.67	3.17±0.84	3.59±0.73	3.07±0.98
M(219)	4.60±1.20	3.70±0.72	3.15±0.85	3.62±0.74	3.14±1.02
F(177)	3.96±1.39	3.59±0.60	3.19±0.84	3.55±0.72	2.98±0.93
F/p	24.470 p<.001	2.916	.259	.958	2.639

<Table 5>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운동선수들의 자율성 지지에 관하여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점수분포를 보이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취목표성향 중 접근(숙달접근, 수행접근)성향에서도 남자가 높은 점수분포를 보였다. 회피성향에서는 숙달회피에서는 여자가 근소하게 높았으며, 수행회피에서는 남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취목표성향에서의 성별차이는 없었다.

3.3 자율성과 성취목표의 상관계수

<Table 6> Correlation of autonomy &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Factor	autonomy	mastery-approach	mastery-avoidance	performanc-approach	performanc-avoidance
mastery-approach	.253***	1			
mastery-avoidance	-.018	.064	1		
performanc-approach	.215***	.440***	.193***	1	
performanc-avoidance	.066	.014	.303***	.227***	1

***p<.001. **p<.01. *p<.05

대학선수들의 인지된 자율성이 성취목표성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전에 상관분석을 통해 두

측정 변인들간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았다. <Table 6>에 제시한 것처럼, 자율성의 성취목표 중 숙달접근(r=.253)과, 수행접근(r=.215)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회피성향의 목표성향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자율성이 성취목표에 미치는 영향

<Table 7>은 대학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 하위요인 4개를 종속변수로 투입하고 자율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Table 7> Regression analysis of autonomy &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Factor	R ²	F	β	t	p
mastery-approach	.064	26.831	.253	5.180	.000
mastery-avoidance	.000	.130	-.018	-.360	.719
performance-approach	.046	19.018	.215	4.361	.000
performance-avoidance	.004	1.710	.066	1.308	.192

대학운동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자율성을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숙달접근목표(β=.253)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변량의 6.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6.831, p<.001). 또한 자율성 지지는 수행접근 목표(β=.215)에도 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19.018,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운동선수들의 자율성 지지와 성취동기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396명의 대학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대학운동선수들의 자율성지지는 남자선수가 여자선수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목표성향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접근성향은 남자선수가 높고, 회피성향은 숙달회피는 여학생이 수행회피는 남학생이 높은 점수분포를 보였다.

둘째, 대학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자율성과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들과의 회귀분석결과 자율성은 숙달접근과 숙달회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운동에서는 성공을 위해서는 운동에 대한 타고난 잠재능력과 반복적인 훈련을 견뎌내고 힘든 과정에서 나타나는 좌절에 대한 복원력, 그리고 다소 어려운 목표가 있어야 한다. 성공을 위한 잠재능력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중 하나가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이다.

노력의 방향은 접근과 회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숙련시키기 위한 접근은 대체로 성공과 직결된다. 그러나 두려움과 의심에 의한 회피는 패배와 직결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성취목표성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율성은 대학여자선수들이 남자선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도자들의 통제가 남자선수보다 여자선수에게 더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도자들이 여자선수들의 경우 훈련을 설 경우 몸이 굳어진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사회적 분위기가 여자들에게 위협하기 때문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다 간섭이 심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자율성은 숙달접근과 수행접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접근은 노력의 긍정적 방향이다. 아무리 타고난 자질이 높아도 노력 없이 이루기는 어렵다. 어려운 기술을 숙달시키고 이를 시합에서 발휘하고자 하는 능동적 자세는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운동기술의 숙련성과 시합에 대한 도전정신을 위해 선수들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을 줄 필요가 있다. 더욱이 대학선수들은 성인으로서 자기결정성에 대한 믿음과 지지를 하는 것이 미래를 대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REFERENCES

- [1] K. H. Kim, J. G. Park, "Examining the Structural Model of Perceived Autonomy Support, Basic Needs, and Motivational orientations among Collegiate Athletes,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Vol. 20 No. 3, pp.33-48, 2009.
- [2] Ryan, R. M. & Deci, E. L.,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In E. L. Deci & R. M. Ryan(Ed.),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 3-33)". Rochester press, 2002.
- [3] Chou, K. L., "Emotional autonomy and depression among chinese adolescent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Vol. 164, No. 4, pp. 1105-1117, 2000.
- [4] McElhaney, K. B., & Allen, J. P., "Autonomy and adolescent social functio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risk. Child Development", Vol. 72, No. 1, pp. 220-235, 2001.
- [5] Gagne, M., Ryan, R. M., & Bargmann, K., "Autonomy support and need satisfaction in the motivation and wellbeing of gymnastic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Vol. 15, pp. 372-389, 2003.
- [6] Elliot, A. J. & Harackiewicz, J. M.,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goals and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pp. 461-475, 1996.
- [7] Maehr, M., "Thoughts about motivation. In C. Ames & R. Ames (Eds.), Research on motivation in education: Goals and cognitions, Vol. 3, pp. 299-315". New York: Academic Press". 1989.
- [8] Ames, C & Archer, J., "Achievement goals in the classroom: Student learning strategies and motivation process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80, pp. 260-267, 1988.
- [9] Roberts, G. C.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 Conceptual constraints and conceptual convergence. In G.C. Roberts(Ed).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 (pp.3-30). Champaign, IL: Human kinetics". 1992.
- [10] Elliot, A. J. & Church, M. A. "A hierarchical model of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2, pp. 218-232, 1997.
- [11] Elliot, A. J., & McGregor, H. A., "2x2 achievement goal framewor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0, pp. 501-519, 2001.
- [12] Y. J. Oh, J. Yoo, "Mediating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Autonomy Support from Teacher and Peers and Intrinsic Motivation in Dance,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Vol. 23, No. 2, pp. 87-101, 2012.

- [13] Y. J. Jeong, E. A. Hong, “The Effects of Autonomy and Feedback on Team Performance: The Mediating Role of Team Efficacy, Korean Journal of Sport Management”, Vol. 19 No. 5, pp. 49-65, 2014.
- [14] J. I. Yoo, M. S. Choi, “youth team sports, autonomy support, psychological needs movement behavior.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Vol. 13 No. 3, pp. 3-14, 2011
- [15] C. H. Chung, Y. S. Kim, C. H. Seong,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y, Competence, Sport Motivation Level, and Effort in High School Football Players.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Vol. 17 No. 3, pp. 61-73, 2006.
- [16] Y. T. Oh, M. H. Yang, “Test of Moderate Effect of Autonomy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Competitive State Anxiety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Taekwondo Players,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Vol. 16, No. 3, pp. 175-187, 2014
- [17] M. H. Yang, “Testing Self-Regulation Motivation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y Support and Self Management among Taekwondo Athletes. Journal of Marine Sport Studies”, Vol. 1 No. 1 pp. 1-19, 2011.
- [18] J. G. Park, D. S. Chang, “Development and Cross-Validation of 2×2 Achievement Goals Questionnaire for Sport.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Vol. 20, No. 4, pp. 243-261, 2009.
- [19] Jong-Sik Lim, Chun-Ho Yang, “relationship between Sports Confidence and Class Satisfaction according to Adolescents’ Participation in Marine Spor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169-176, 2015.
- [20] Hyea-Kyung Lee, Eun-Hee Shin, Yeon-Kyung Kim, “Converged Influencing Factors on the Stages of Change of Exercise in Middle Aged Wom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187-197, 2015.

황 성 근(Hwang, Sung Geun)



- 2008년 2월 : 경북대학교 사회체육학과(체육학석사)
- 2012년 2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체육과학과(이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경북과학대학교 국제스포츠계열 외래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심리학
- E-Mail : hsg073@naver.com